생활체육 인프라 전국 '최고'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등 기반시설 순차적 확대… 시민 건강 증진 기여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체육 인프라로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올해 분야별 체육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시는 올 하반기에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와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등이 순차적으로 완공된다고 밝혔다.

총 162억원이 투입된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는 익산종합운동장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10월 완공된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1·2층에는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고

3층에는 펜싱경기장이 설치된다.

이곳은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펜싱아카데미는 시청 펜싱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과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등 국가대표급 선수단 훈련과 각종 전국대회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북부권 주민들의 쾌적한 레저활동을 지원할 어울림 파크골프장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19억1천만원을 투입해 용안 매립장 유휴부지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이며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익산지역 테니스 동호인과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마동테니스공원은 최근 완공돼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총 137억원이 투입된 테니스공원은 실내 4면, 실외 10면 등 총 14면의 테니스장이 들어섰으며 화장실과 샤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실내코트 경기장은 주간에도 조명 없이 밝은 실내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부는 휴식공간과 산책로, 주차장을 포함해 연습용 백보드 등을 설치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2022한불 DIT '앙동마차'

군산시-건축공간연구원, 중앙동 주민공동체와 상권 활성화 행사

째보선창을 중심으로 한국과 프랑스 창작단체가 함께하는 주민참여 행사가 열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와 건축공간연구원이 협력해 프랑스의 건축도시 전문단체를 초빙, 중앙동의 지역적 특징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사회실험 행사/축제를 통해 향후 지역성을 담은 문화콘텐츠, 로컬 블랜드 등을 개발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2022한불 DIT' '앙동마차'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초청된 프랑스의 건축도시 전문단체인 카바농 벡띠칼(Cabanon Vertical)은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창작집단으로 약 10년간 실험적 주민참여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체다.

카바농 벡띠칼은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도시계획에서 필요한 주민 공간들을 벤치, 쉼터 등 가볍고 임시적인 구조물을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낸 성과가 있다.

이번 행사는 중앙동 째보선창 측과 중앙동 상권 거리를 중심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는 감성지도와 앙동마차를 제작하고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만들어진 시설물과 함께 거리 퍼레이드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가 더욱 특별한 것은 지역주민외에 군산시 대야면에 위치한 한들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18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이 도시정책과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DIT 행사 등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지역의 주체가 되어 문제 해결 방안 등을 함께 만들어 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예정이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군산시만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이 가진 장점을 특화할 수 있는 이번 행사가 주민 주도의 혁신적인 도시 및 사회정책이 실현되는 첫 걸음이되길 바란다"로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이번 여름휴가는 '고군산군도'로 오세요

선유도·무녀도·방축도 행안부 '여름철 찾아가고 싶은 섬 15선' 선정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의 선유도, 무녀도, 방축도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대표 섬이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짚라인 레저체험 시설에서의 시원한 여름이 떠오르는 '첨벙섬'에 선정됐다. 무녀도는 '캠핑섬'으로 선정되며 최신식 시설과 갯벌체험으로 인기가 높은 오토캠핑장의 인기를 실감했다. 방축도는 지난해 10월 정식개통한 출렁다리와 독립문바위 등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며 '칠각섬'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선유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섬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월별 선정하는 '이달의 섬' 중 8월의 섬으로도 선정됐다. 선유도는 해수욕장과 국내 바다 위 최장길이를 자랑하는 짚라인 외에도 선유1구 옥돌해수욕장과 선유3구의 몽돌해수욕장,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대표 자연경관인 '선유8경', 고군산군도의 풍경 구석구석을 선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투어, 갯벌체험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육지로 연결되어 여타 섬과 달리 주차시설과 숙박·식당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도 선유도 여행의 특장점이다.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운영하는 '섬 한달살이'를 통해 섬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섬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는 것도 추천한다. 역대 섬의 날 개최지인 목포·신안, 통영, 군산 내 섬을 대상으로 만19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0개 팀을 모집하여 3일~30일간 1일 숙박비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

'섬 한달살이'와 전국의 '찾아가고 싶은 섬 15선' 방문 인증샷 경품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섬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섬에 대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제3회 섬의 날 행사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선유도에서 개최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단골온누리약국 공공심야 시범 약국 선정

휴일과 심야시간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에 선정됐다.

군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단골온누리약국(하나운로 38)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약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및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에 기여하기 위해 선정했다.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시간을 운영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심야약국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정된 제도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보건소는 공공심야약국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시의회와 협력체계 구축 적극적 사업발굴 주문

정헌율 익산시장은 27일 간부회의에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이뤄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적극적 사업 발굴에 힘써 달라" 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혁신적 자세로 지역 성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생현안에 꼭 필요한 추가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제9대 익산시의회 출범하고 원구성도 이루어 진다"며 "익산시 대도약을 위한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 협력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도적인 자세로 적극 소통하겠다는 마인드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이번 주 7월1일 치러 질 민선8기 취임식이 "시민과 함께 익산 발전 완성"이라는 시정철학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이달 말까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찰과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원숭이두창 비상 방역대책반 가동

익산시는 원숭이두창 발생과 관련 신속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22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감염병의심사례 감시·대응반, 역학조사반, 예방접종반, 검체관리반 등 총 4개반 57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에 내원한 의심 환자에 대해서 24시간 안에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익산시의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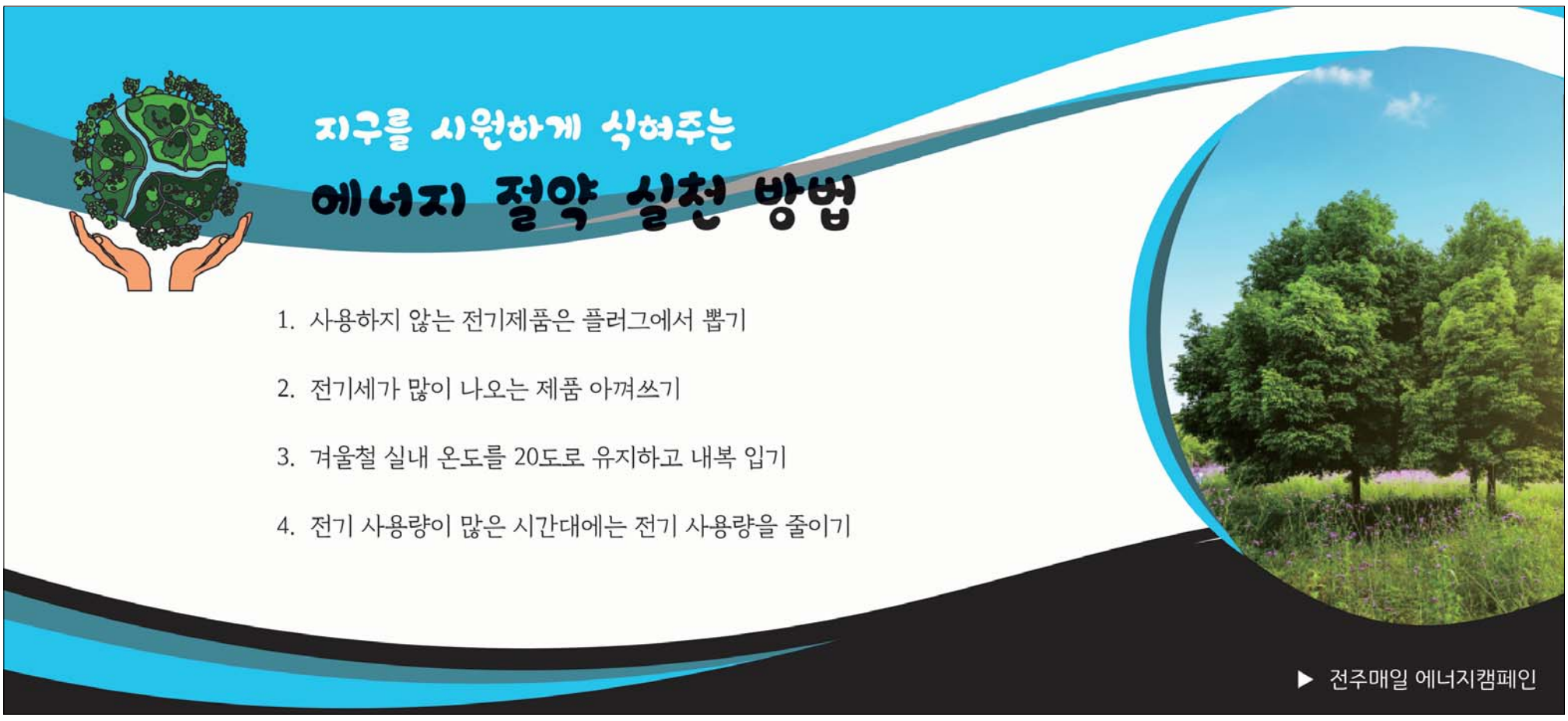
이진윤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의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노력과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익산시는 금융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익산시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모델이 전국적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7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지원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들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미소금융 예산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하고 시에서 최대 5년간 이자전액을 지원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오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